

신·재생 에너지 전시관 광주에 건립

미래 에너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·재생 에너지 전시관이 조선대 등에 들어선다.

광주시에 따르면, 태양광과 태양열·수소 연료전지 등 신·재생 에너지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이 조선대와 광주 과기원 등 2곳에 건립될 예정이다.

조선대 태양에너지 교육홍보관에 들어설 전시관(11억원)은 340㎡모로 홍보관 개요, 솔라시티(Solar City) 미래비전, 태양에너지 산업,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2008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.

광주과기원 지역에너지센터에 들어설 전시관은 실내 홍보관(1000㎡)과 실외전시관(3300㎡)으로 조성되며 50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된다.

특히, 에너지센터 실외 전시관은 신·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태양광을 이용한 미니풍차, 자전거 바퀴를 돌려 분수를 작동하는 미니분수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7/10>